



# ➤ 최근 환율 이슈와 국제공조 방안

2009. 5

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 
본부장 김 성 민

**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**

**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**

**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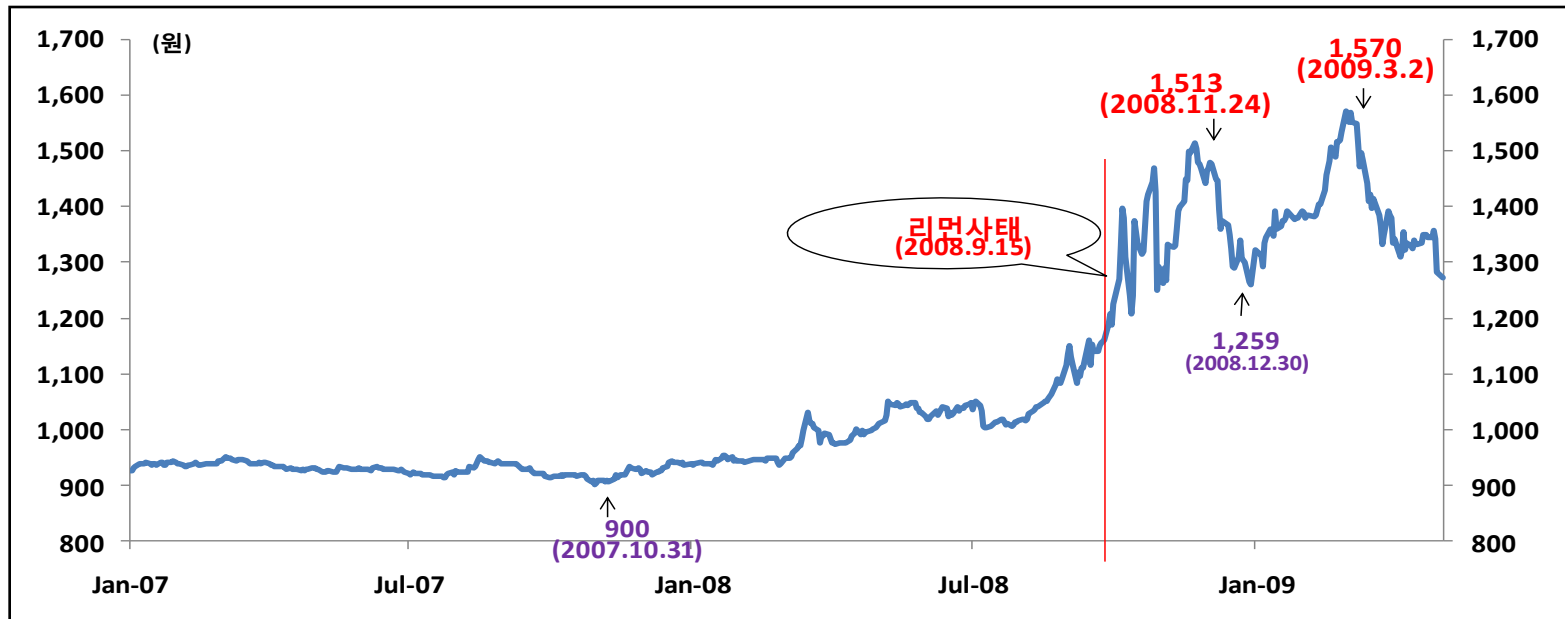
**IV. 시사점**
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# ① 원/달러 환율

- 원/달러 환율은 2007.10월말 900.7원을 기록한 이후 그간의 장기 하락추세에서 급등세로 전환하여 2008년 11월에는 1,513원까지 상승
  - 2008년말에는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금년 들어 다시 급등세를 보여 3월초 1,570원까지 상승한후 하락세로 전환하여 5.13일 현재 1,244원을 기록


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# ② 2007년 이후 시기별 원/달러 환율 등락과 원인(1)

### ● 원/달러 환율은 2007.10월말 900원까지 하락

- 2006년 이후 글로벌 미 달러화 약세, Yen-carry trading의 영향, 기업체들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, 비거주자들의 역외선물환 매도 등으로 원화 강세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

### ● 2007.11월 이후 오름세로 전환된 후, 2008.11.24일에는 1,513원까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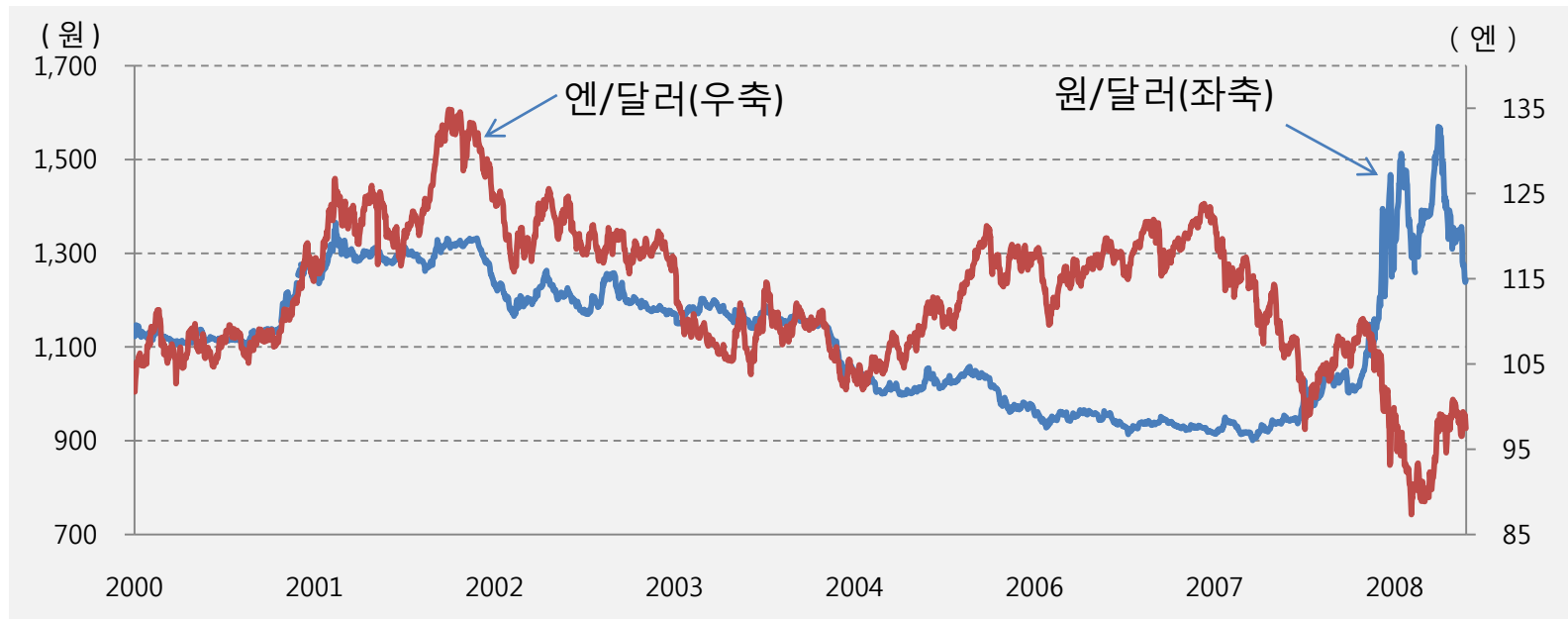
- 특히 2008.9월 중순 미국 Lehman Brothers 사태 이후 해외금융기관들의 투자자금 회수 및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부족 우려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
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# <참고> 엔/달러 환율

- 엔/달러 환율과 원/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2003년까지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변동
  - 이는 Yen-carry trading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

엔/달러 환율 추이


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# ② 2007년 이후 시기별 원/달러 환율 등락과 원인(2)

### ● 2008년말에는 1,259원으로 하락

- 11월말을 전후하여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 움직임, 당국의 외화유동성 공급,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내림세로 전환

### ● 2009년 3월까지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현되면서 다시 큰 폭 상승

- 동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되면서 2009.3.2일 장중 한때 1,596원까지 급등

### ● 09.4.30일 59원이 급락한 이후 1,250원선에서 등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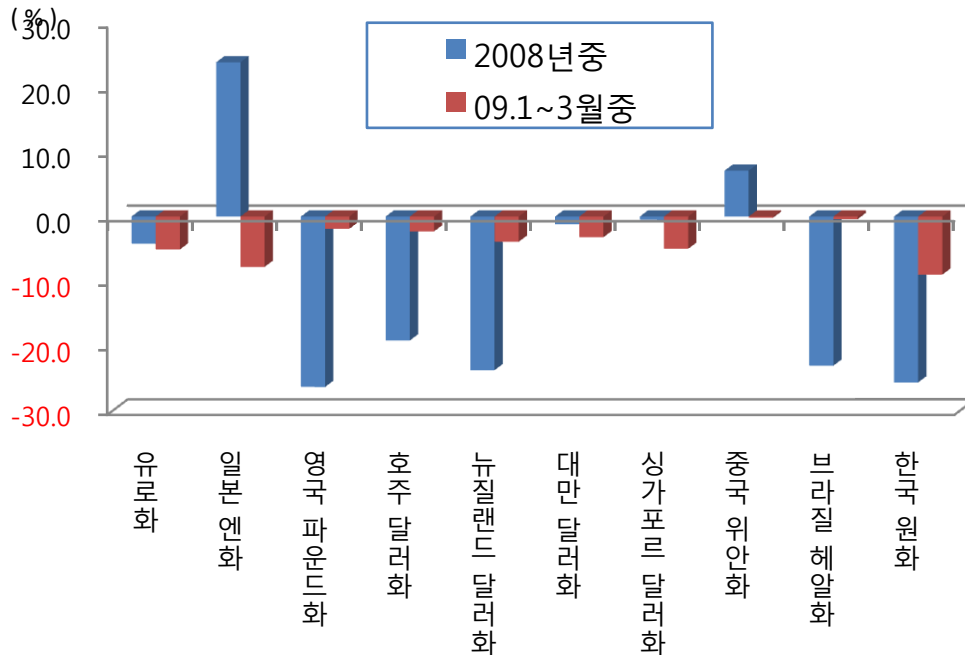
- 외국인 주식순매수, 수출감소폭 둔화,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에 기인
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# ③ 여타 통화에 비해 원화의 약세폭 심화

- 원화는 2008년~ 2009년 3월중 주요국 통화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약세를 시현  
 - 다만 4월에는 원화가 큰 폭의 강세로 전환(4월중 +7.9%)

주요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변동률



	2008년중	09.1~3월중
유로화	-4.2	-5.1
일본 엔화	23.9	-7.8
영국 파운드화	-26.4	-1.9
호주 달러화	-19.2	-2.3
뉴질랜드 달러화	-23.8	-3.9
대만 달러화	-1.2	-3.2
싱가포르 달러화	-0.5	-5.0
중국 위안화	7.1	-0.2
브라질 헤알화	-23.1	-0.4
한국 원화	-25.7	-9.0

1) 각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기말환율 기준 절상(+), 절하(-)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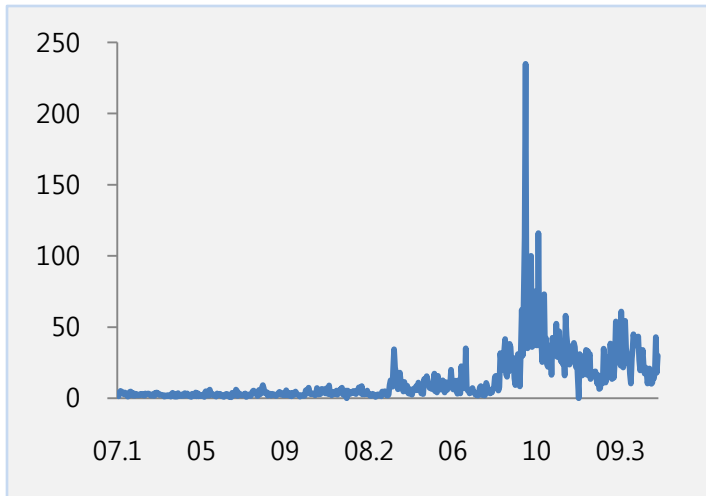
# I.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외환시장 동향

## ④ 환율의 변동성 크게 확대

### ● 국제금융시장 불안 여파 등으로 원/달러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

- 일중 변동폭은 2007년 3원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25원을 상회
- 일중 외환거래량도 2007년 83억불에서 2009년 49억불로 크게 축소

원/달러 환율 일중 변동폭 추이



원/달러 환율 변동성 및 외환거래량 추이(일평균)

(원, %, 억불)

	07년	08년	09년				
				1월	2월	3월	4월
일중 변동폭 <sup>1)</sup>	3.0	18.3	25.4	23.0	18.8	35.6	23.2
전일대비 변동폭 <sup>2)</sup>	2.1	12.0	16.0	15.8	11.0	22.2	14.4
전일대비 변동률 <sup>3)</sup>	0.22	0.98	1.15	1.20	0.76	1.53	1.07
은행간 현물환거래	83	78	49	51	48	45	53

주: 1) (당일 최고가 - 당일 최저가)    2) (당일 증가 - 전일 증가)의 절대치

3) [(당일 증가 - 전일 증가)의 절대치] / 전일증가

#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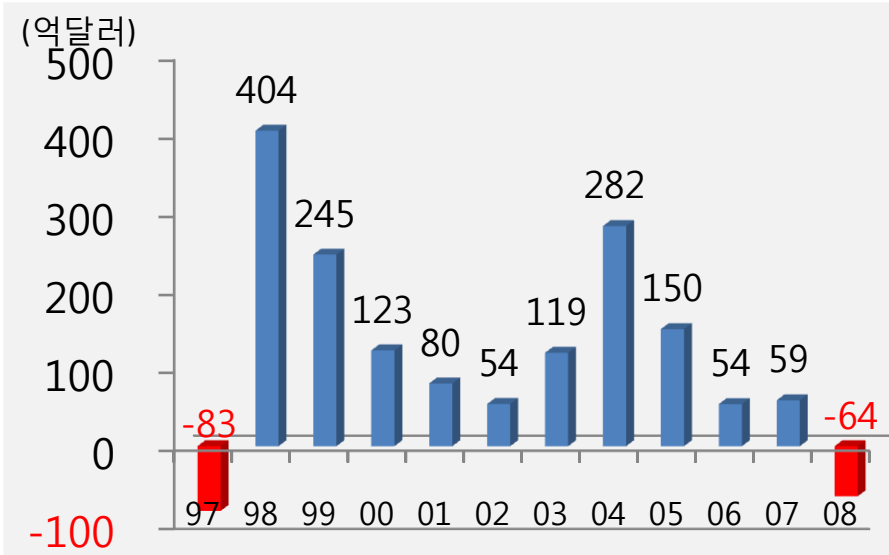
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## ① 경상수지 적자 전환

● 경상수지는 2008년중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  
 (2007년 +59억달러 ⇒ 2008년 -64억달러)

-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지의 흑자폭 축소, 서비스수지 적자 등에 주로 기인

경상수지 추이



경상수지의 항목별 추이

(억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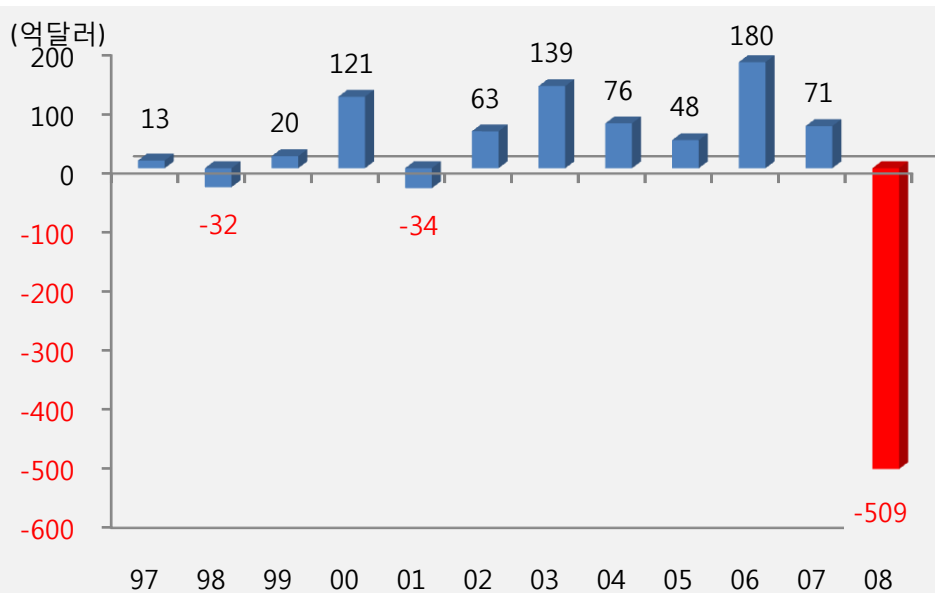
	2004	2005	2006	2007	2008
▪ 경상수지	282	150	54	59	-64
(상품수지)	376	327	279	294	60
(서비스수지)	-80	-137	-190	-206	-167
(소득수지)	11	-16	5	8	51

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## ② 자본수지의 대규모 적자

- 자본수지는 2008년중 509억달러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  
 (2007년 +71억달러 ⇒ 2008년 -509억달러)

자본수지 추이



자본수지의 항목별 추이

(억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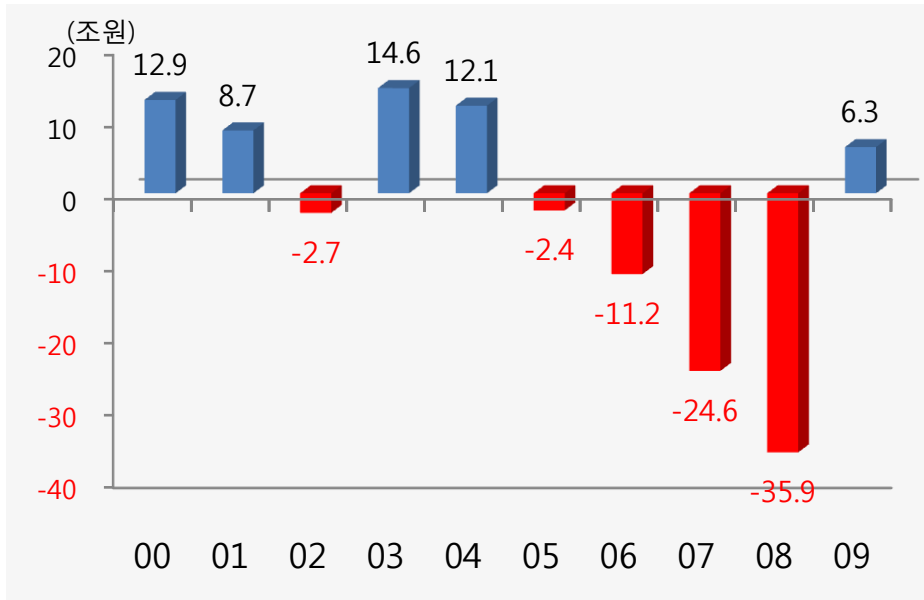
	04	05	06	07	08
▪ 자본수지	76	48	180	71	-509
(직접투자수지)	46	20	-45	-138	-106
(포트폴리오 투자수지)	66	-35	-232	-261	-154
(파생금융 상품수지)	20	18	5	54	-143
(기타투자수지)	-39	68	484	440	-106

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## ●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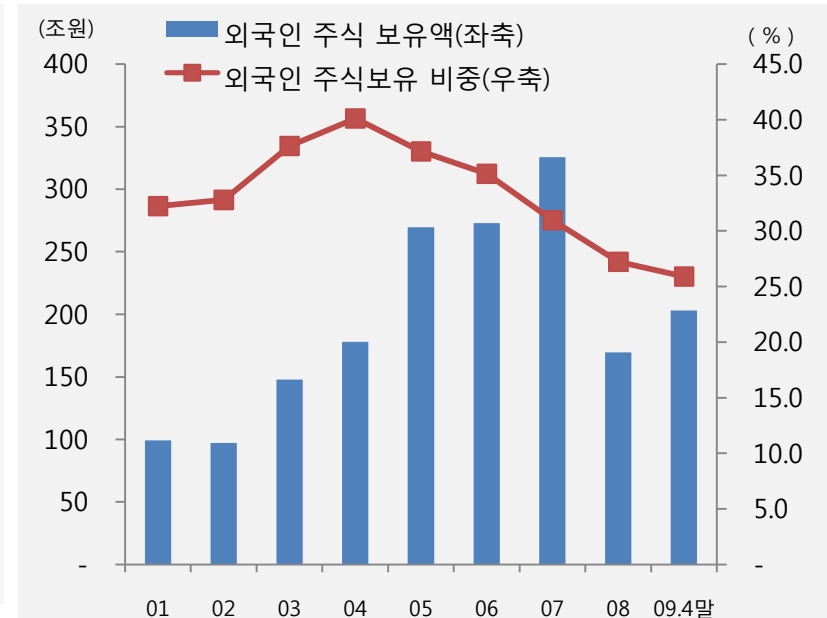
- 외국인 순매도 규모 : 07년 -24.6조원, 08년 -35.9조원, 09.1~5.13일중 +6.3조원
- 외국인 보유주식의 시가총액대비 비중 : 04년말 40.1% → 09.4월말 25.9%

###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



주 : 거래소 및 코스닥 합계, 09년은 1.1~5.11일중

### 외국인 주식 보유액 및 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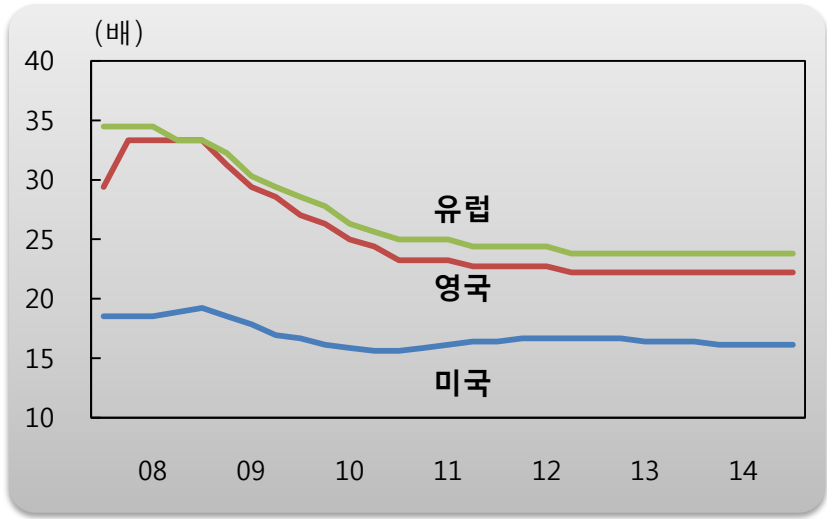
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## 〈참고〉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이유(1)

●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주요국 금융기관의 글로벌 De-leveraging 현상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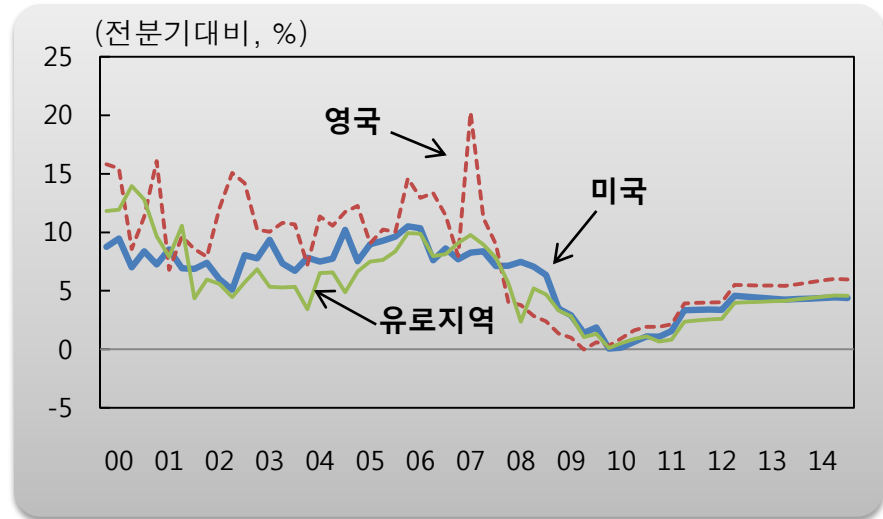
⇒ 선진국 금융기관의 위험자산(주식 등) 투자 대폭 축소

주요지역 은행의 레버리지<sup>1)</sup> 전망



주 : 1) Total Asset/Tier 1 capital  
자료 : IMF(08.10)

민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<sup>1)</sup>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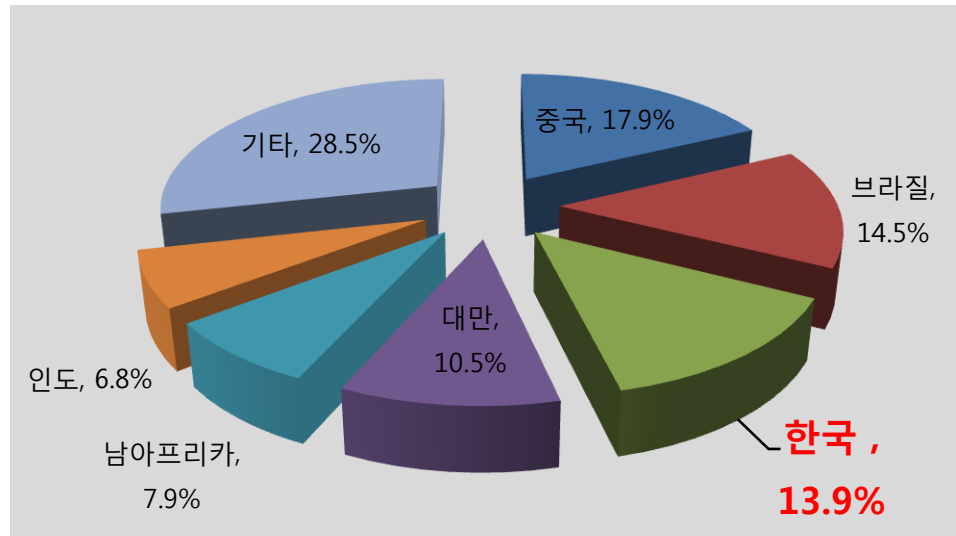
주 : 1) 전분기대비 증가율(연율)  
자료 : IMF(08.10)

#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### <참고>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이유(2)

-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국의 펀드환매자금 마련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세계 시장에서 위험자산을 매도
  - 한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유통성도 높아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임

MSCI 이머징마켓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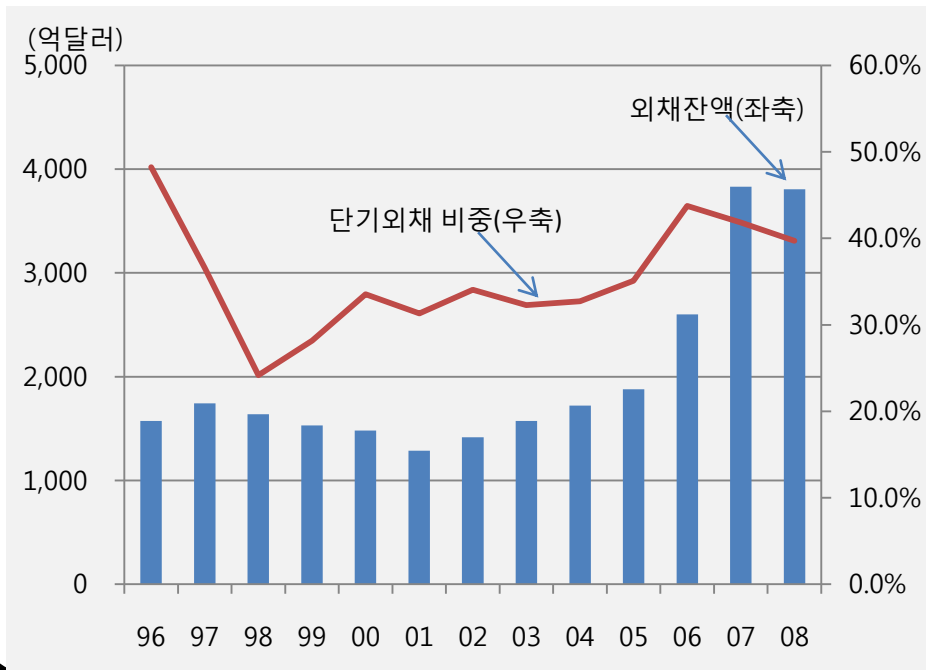
자료 : FactSet, MSCI(2009.1월말 현재)

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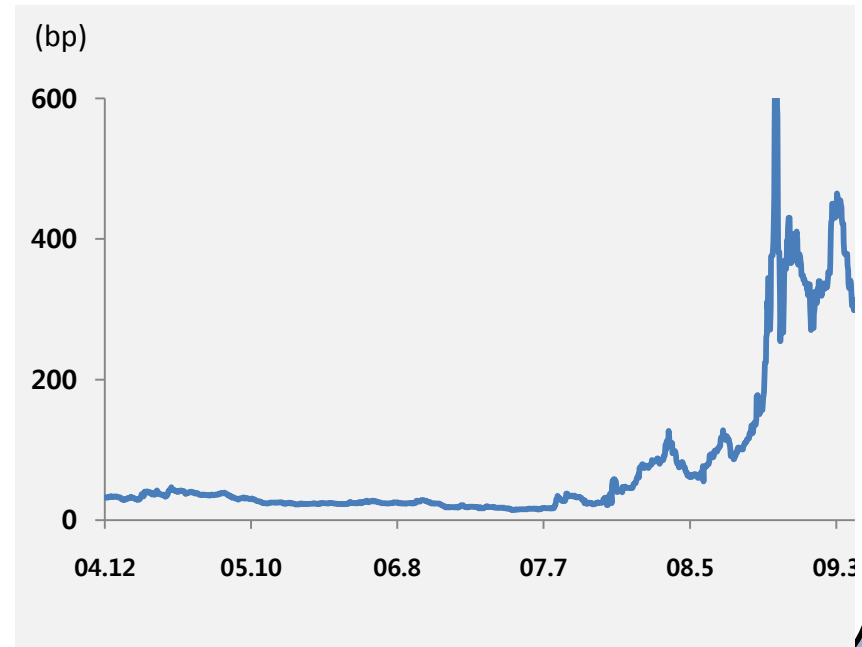
## ③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경색(1)

- 외채규모 증가 : 05년말 1,879억달러 → 08년말 3,805억달러
- 단기외채비율 상승 : 05년말 35.1% → 08년말 39.7%
- 한국물 CDS 프리미엄 급등 : 07년말 45bp → 08.10.27일 675bp

외채 잔액 및 단기외채 비중



한국물 CDS 프리미엄 추이





# II. 원/달러 환율 상승 요인

## ③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경색(2)

- 국내은행의 외화자금사정은 2008.9월 리만사태 이후 크게 악화
  - 단기차입금 차환율은 2007년중 103.4%에서 2008년 4분기 36.6%로 큰 폭 하락
  - 외화차입금 만기도래 규모는 2009년중 284억달러, 2010년 이후 433억 달러로 추정

국내은행의 외화 단기차입금 차환율 및 만기도래규모 (% , 억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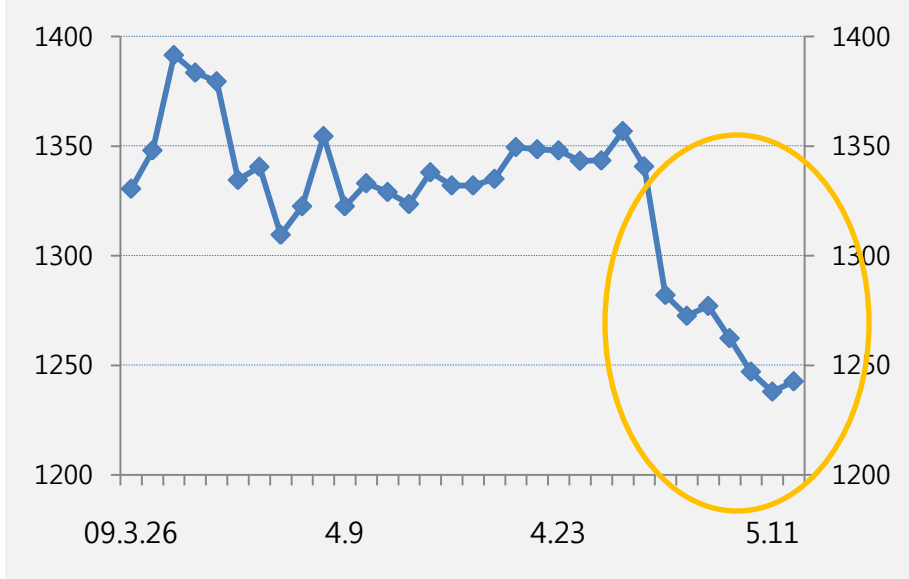
	2007년	2008년	9월	4/4분기	2009.1월
단기차입금(A)	764.6	795.8	56.0	86.3	33.3
만기도래금액(B)	739.8	957.9	83.5	235.9	38.7
단기차입 차환율(A/B)	103.4	83.1	67.1	36.6	86.0

# <참고> 09.4월중 원/달러 환율 급락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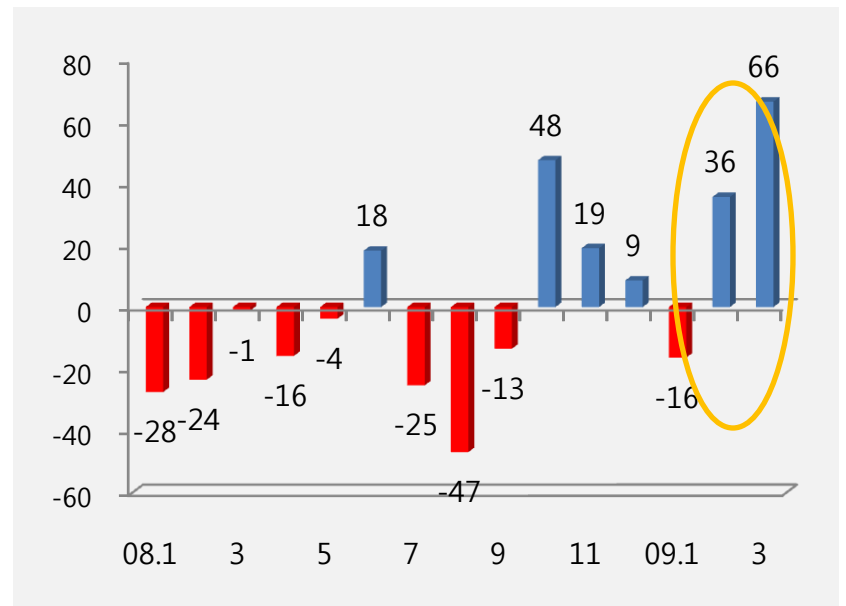
● 2009.4월중 원/달러 환율은 큰 폭 하락  
 (3월말 1,384원 → 4월말 1,282원, -102원, +7.9% 절상)

- 이는 3월 경상수지의 사상 최대폭 흑자(66억불, 4.29일), 글로벌 경기의 회복 가능성,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 전환 등에 주로 기인

09.3월말 이후 원/달러 환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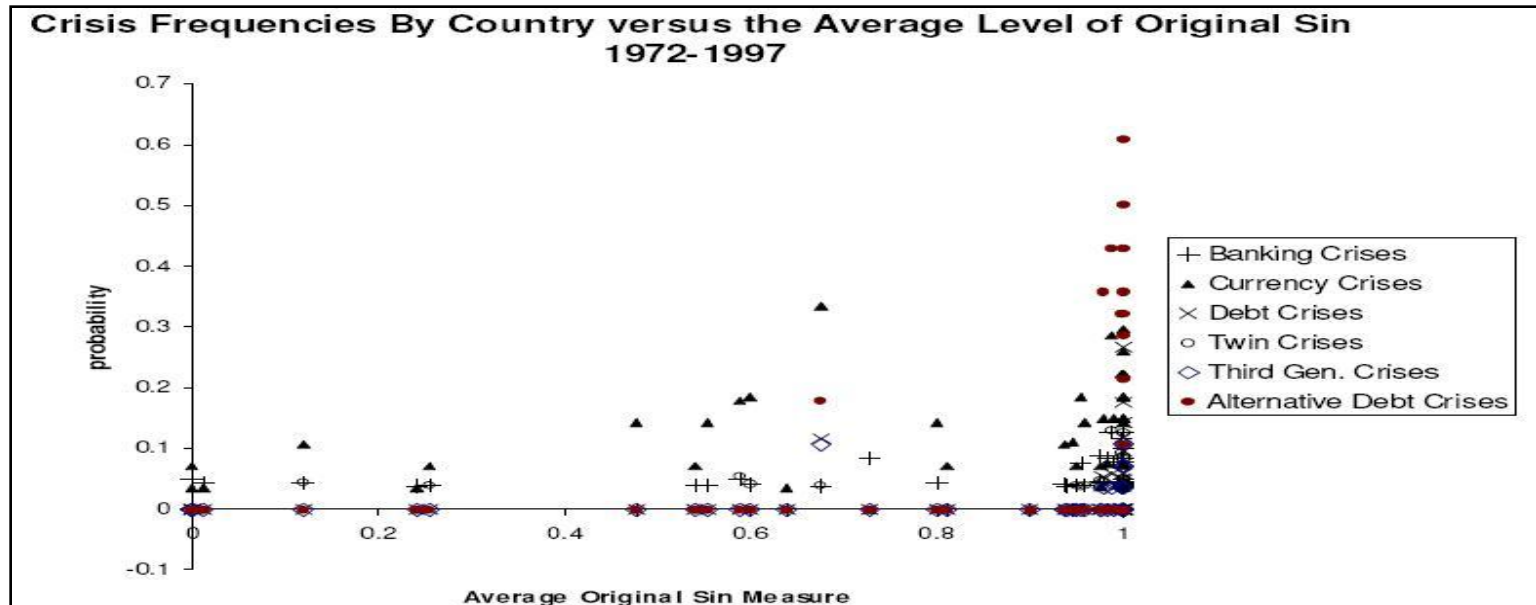
최근 경상수지 추이

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- 국제금융위기 발생시 신흥시장국들은 외화유동성 악화로 인한 경제불안을 겪는데 이는 **원죄 (original sin)** 요인이 작용한 결과 (Eichengreen & Hausmann, 1999)
  - 원죄는 자국통화표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을 지칭
- Bordo and Meissner(2006)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죄의 정도와 경제위기 발생확률간에는 직접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

자료 : Bordo and Meissner(2006),

##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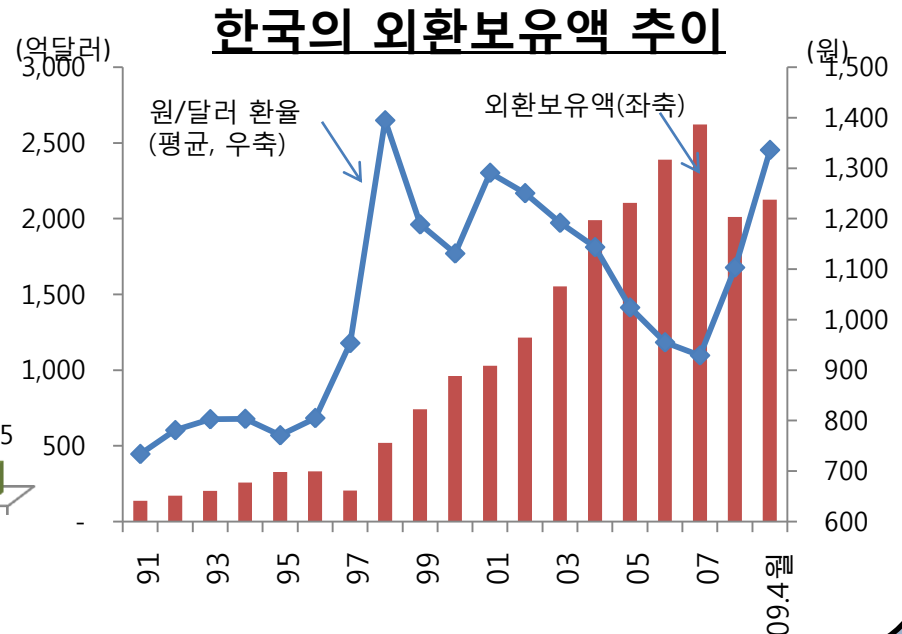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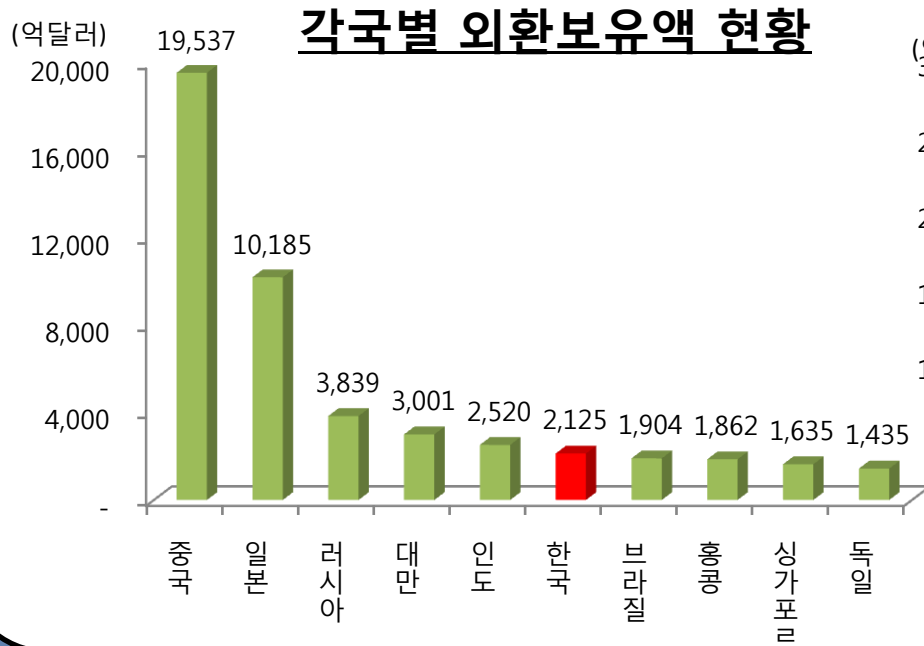
-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우 원죄의 영향이 증폭되면서 외화유동성 사정이 악화되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불안요인으로 작용
-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음
  - ① 외환보유액의 확충
  - ②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Bilateral Agreement의 활용
  - ③ IMF 등 Multilateral Agreement의 활용
  - ④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화 통화표시 채권의 발행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① 외환보유액 확충(1)

### ●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

- 2009.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,125억달러(세계 6위)
- 08.3월 최고치인 2,642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경상수지 적자, 외환시장 개입 규모 증가 등으로 감소

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① 외환보유액 확충(2)

### ●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

- 외환유동성 부족시 즉시 이용할 자금이 충분
- 경제정책의 독자성 유지가 가능

### ●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

- 막대한 기회비용의 발생
- 적정규모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
-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 손절매가 불가피한 점
- 외화자산 운용 대상국의 금리왜곡으로 인한 자산거품현상 초래 가능성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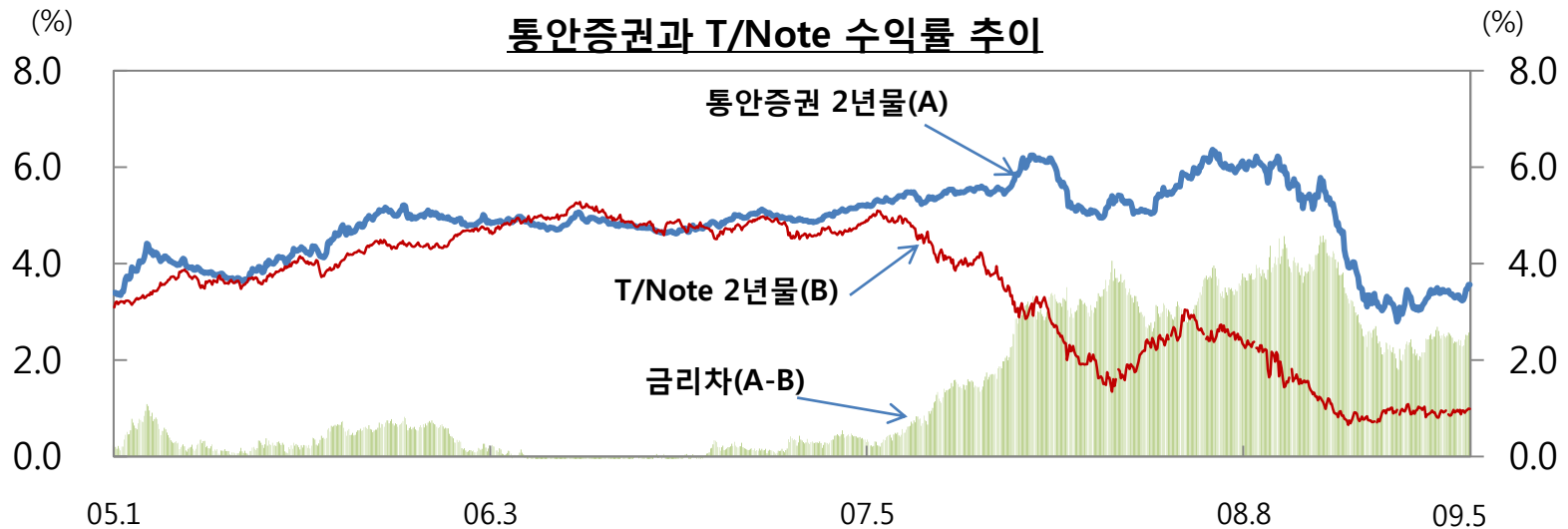
## ① 외환보유액 확충(3)

● 외환보유액 확충 및 유지에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적정규모의 산정이 어려움

- 외환보유액의 기회비용은 운용수익(주로 미국채 수익률)과 조달비용(통안증권 수익률)의 격차로 볼 수 있음

• 통안증권 수익률(2년) - T/Note수익률(2년) : 07.5말 0.3%p → 09.4말 2.6%p

⇒ 07년 중반이후 그 격차가 크게 확대





### Ⅲ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## ① 외환보유액 확충(4)

- 이번과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경우 외환보유액 활용을 위한 미국 국채 등의 대규모 매각은 국채가격을 폭락시켜 중앙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
- 또한 이번과 같이 중국 등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미국 장기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왜곡시켜 주택가격거품과 같은 금융불안의 원초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
##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<참고> 신흥시장국의 외환보유액 확충과 미국 주택가격 거품

- 200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, 러시아, 대만,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들은 경쟁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림
  - 이들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 등에 투자
  - ⇒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거품을 확대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
  - \* 이러한 현상을 Bernanke는 Global savings glut이라고 지칭했으며 미국 장기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을 Greenspan은 conundrum이라고 표현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② Bilateral Agreement(1)

- 양자간 협력(Bilateral Agreement)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충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개국 중앙은행은 美 연준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
    - \* ECB, 스위스, 일본, 영국, 캐나다, 호주, 덴마크, 노르웨이, 스웨덴, 뉴질랜드, 한국, 브라질, 멕시코 및 싱가포르
  - 또한 ECB, 스위스, 영국 및 일본 중앙은행과 美 연준은 통화스왑 한도 폐지

### 각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한도

(억달러)

ECB,스위스,일본,영국	캐나다,호주,스웨덴,한국 등 <sup>1)</sup>	덴마크,노르웨이,뉴질랜드
무제한	각각 300	각각 150

주 : 1) 멕시코, 브라질, 싱가포르 포함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② Bilateral Agreement(2)

-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Bilateral Agreement는 외환보유액 확충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
  - ① Sovereign risk가 큰 국가가 sovereign risk가 낮은 국가와 bilateral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
  - ② 이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체결대상국의 통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convertibility가 낮으면 외환보유액을 보충하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점
  - ③ 국제금융시장에서 convertibility가 완벽한 통화를 가진 국가가 소수라는 점
  - ④ 한도가 정해져 있어 외화유동성 사정에 따라 신속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③ Multilateral Agreement : IMF의 자금활용(1)

- 최근 IMF는 우크라이나 등 15개국에 725억달러의 대기성 차관(Stand-by Arrangement)을 지원(08.11월~09.5월)
  - 우크라이나, 헝가리, 파키스탄, 아이슬란드, 라트비아, 세르비아, 벨로루시, 아르메니아, 루마니아, 보스니아, 몽골, 엘살바도르, 과테말라, 코스타리카, 세이셸 등
  - 또한 신흥시당국 대상의 단기유동성 공급제도(SLF : Short-Term Liquidity Facility)\*를 신규로 도입(08.10월)
    - \*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에 대한 신속한 단기자금 지원을 위해 도입
- 한편 IMF는 stigma effect 문제를 완화하고 실제적 및 예비적 자금수요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제도인 "탄력적 신용공여제도"(FCL, Flexible Credit Line)를 추가 도입(09.3월)
  - \* 최근 멕시코 470억달러(4월), 폴란드 205억달러(5월), 콜롬비아 104억달러(5월) 등이 FCL을 이용한 유동성 지원 약정을 체결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③ Multilateral Agreement : IMF의 자금활용(2)

● IMF를 통한 유동성 확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고 외환보유액의 확충이나 bilateral agreement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음

① Stigma Effect : 국가신인도 저하

\* IMF는 08.10월경 한국에 SLF 대출이용을 타진해 왔으나 기획재정부는 국가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

② Strict conditionality : 구조조정, 고금리 유지 등 경제정책 주도권 상실

③ Governance of IMF\* : 선진국 위주의 IMF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

\* IMF Quota : 미국 17.1%, 일본 6.1%, 독일, 6.0%, 프랑스 4.9%, 중국 3.7%, 한국 1.35%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③ Multilateral Agreement : IMF의 자금활용(3)

- IMF가 최근에 도입한 SLF와 FCL은 기존 IMF대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아직까지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
  - ① SLF의 경우 거시경제 fundamental은 건전하나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국가들에 대해서 conditionality를 부과하지 않고 단기자금을 지원하는 수단이나 그 판단기준에 불확실성 존재
  - ② FCL의 경우 stigma effect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
  - ③ Conditionality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이를 남용하는 국가들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불확실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④ Multilateral Agreement : CMI 협력(1)

-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역내 다자간 금융협력 체제 구축 (Multilateral Agreement) 필요성 대두
- 2000.5월 ASEAN+3(한중일)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들은 통화스왑계약을 체결기로 합의 (CMI Chiang Mai Initiative, 치앙마이 이니셔티브)
- 2006.5월 ASEAN+3 재무장관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금융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CMI 다자화 논의를 시작하고 3년간 CMI 다자화(CMI Multilateralisation)를 추진  
⇒ CMI를 보다 결속력이 있는 단일의 공동펀드로 전환

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④ Multilateral Agreement : CMI 협력(2)

- 2009.5월 전체 CMI 펀드 1,200억달러의 분담금 비율에 대해 합의
    - 중국, 일본 각 384억달러(각 32%), 한국 192억달러(16%), 아세안 국가(20%)
    - 한국은 중국,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큰 분담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 논의에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
    - 분담금 대비 인출배수\*(borrowing multiple)는 중국과 일본 각각 0.5, 한국 1.0, 아세안국가 2.5~5.0으로 결정
      - \* 위기시 인출가능금액 = 분담금 × 인출배수
- ⇒ 이에 따라, 한국은 192억불을 분담하고 위기시 192억불까지 인출 가능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〈참고〉 CMI 분담금 내역 및 인출비율

**CMI 다자화 회의 분담금 합의사항**  
(2009.5.3일)

국가	분담금(십억불)	분담금 대비 인출비율 (Borrowing Multiple)
중국	중국 : 34.2 홍콩 : 4.2	중국 : 0.5 홍콩 : 2.5
일본	38.4	0.5
한국	19.2	1
브루나이	0.03	5
캄보디아	0.12	5
인도네시아	4.77	2.5
라오스	0.03	5
말레이시아	4.77	2.5
미얀마	0.06	5
필리핀	3.68	2.5
싱가포르	4.77	2.5
태국	4.77	2.5
베트남	1.00	5

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 ④ Multilateral Agreement : CMI 협력(3)

- CMI을 통한 다자간 협조는 국제적 유동성 확보 및 한국 지분이 높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
  - ① 평상시 192억불을 분담하고 위기발생시 192억불을 인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지
  - ② 국가 신인도가 낮고 지분율도 낮은 국가들에 대한 빈번한 자금지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

##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## ⑤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화 표시 채권 발행(1)

- Bordo 등(2003)은 캐나다·호주 등을 사례로 신흥시장국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자국통화 표시 채권 발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
  - 이들 국가들은 1930년대까지 원죄의 문제를 겪었으나 이후 자국통화 표시 채권발행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이를 극복
  -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, 신뢰성이 있는 통화정책체제의 구축, 국내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발달 등에 힘입은 바가 큼

### III. 외화유동성 확충과 국제공조 방안

#### ⑤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국화 표시 채권 발행(2)

● 또한 최근처럼 국제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국제공조하에 신흥시장국 통화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

- 예를 들어 Eichengreen(2002)은 신흥시장국으로 구성된 새로운 통화 바스켓 지수를 만들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이러한 지수를 바탕으로 한 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

##### Eichengreen이 제안한 원죄의 국제적 해결방안

- ① 적절한 EM(Emerging markets) 통화바스켓 지수 개발
- ② 세계은행, G10국가 등이 EM지수 표시 채권 발행
- ③ Em지수표시 채권 유통시장 발전 촉진

⇒ 다만 이러한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은 Euro처럼 통화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기시 순조롭게 roll-over되고 hard currency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

# IV. 시사점

## IV. 시사점

-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들은 근본적으로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원죄를 안고 있으므로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다양한 외화유동성 확충방안을 평소에 마련할 필요  
⇒ 외환보유액 확충, 양자·다자간 국제협력 체제 구축, 원화표시 채권의 발행 추진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유동성 확충 방안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

## IV. 시사점

- 이와 함께 국제적 공조 등에 의한 외화유동성 확충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
  - ① 국내 거시경제의 재정 및 금융면에서의 건전성을 평소에 확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  - ②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mismatch를 줄이는 노력과 국내 채권시장의 발전을 통해 외화자금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
  - ③ 한국 실정에 맞는 국제공조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



# Q & A

감사합니다